

이혼후 재혼 가족의 적응

한 경 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후 재혼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재혼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과정을 탐색하고 관련변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실증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주요 쟁점 및 적응관련 변인을 고찰하였다.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많이 완화되면서 학문적 논의도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재혼가족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적응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재혼가족을 유형화하는 작업의 중요성 및 재혼가족에 내재한 특성이 이들 가족의 적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방법론적, 이론적 문제점과 이러한 서구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재혼가족의 적응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간단히 논의하였다.

핵심어: 이혼후 재혼의 적응 · 재혼의 보상과 비용 · 재혼가족의 다양성
· 재혼가족의 내재적 특성 · 적응관련 요인

우리나라 이혼남녀의 재혼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재혼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최근에는 이혼한 남녀의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및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실증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 및 재혼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재혼가족을 규범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이고 비정상적 가족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혼 및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이유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 및 사회적 관심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혼하고 재혼하였다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숨겨야하는 일로 여겨지고, 연구자들은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연구대상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실증연구 부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는 또한 이들에 관한 기초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및 재혼에 얼마나 많은 수의 자녀들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서 우리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혼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혼형태는 합의이혼이 대다수이나, 자녀수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만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혼증가 추세에 있어 결혼초기 이혼율의 증가보다 30대 연령층 이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비추어, 유자녀 이혼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유자녀 재혼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1980년까지는 재혼에 있어 남자재혼-여자초혼의 결합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남녀 모두 재혼인 유형의 구성비가 가장 높아지기 시작하였다는(통계청 1995) 사실에서도 유자녀 재혼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서구의 연구들에 의하면 재혼가족에 있어 전혼자녀는 양육, 훈육과 관련된 어려움, 부모역할 기대 불일치 문제 등 '새로' 형성된 가족의 관계구조화에 있어 주된 긴장원으로 작용하며(Ishii-Kuntz & Ihinger-Tallman, 1991), 부모-자녀관계의 적응이 재혼가족의 적응에 결정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재혼가족의 계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한 임춘희(1996)의 연구에서도 재혼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전혼자녀와 관련된 계모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재혼가족 중 배우자 사별이 아닌 이혼후 재혼하여 형성된 재혼가족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되, 적어도 배우자 어느 한 편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적응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²⁾. 실제 재혼가족에 대한 서구의 실증연구들도 자녀가 없는 경우의 재혼가족은 관계역동성이나 적응과정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초혼과 매우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무자녀 재혼가족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재혼가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적응과정의 탐색과 관련요인 고찰에 있어 서구의 연구결과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구에서는 이혼 및 재혼율의 증가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혼후 재혼'의 증가현상을 반영하듯 이혼관련 연구 전문 학술지인 Journal of Divorce가 1990년에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로 명칭이 바뀌면서 재혼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배우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이 전혼의 경험이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의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은 전혼으로부터의 자녀가 있어서 계부/모-자녀관계를 가지는 계부모가족stepfamily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용어가 구별되나, 실제 연구에서는 유자녀 재혼가족을 일반적으로 재혼가족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재혼가족은 계부모가족을 의미하게 된다.

서구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의 연구들은 이혼 및 재혼을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주로 이혼, 재혼의 부정적 영향을 밝히려는 작업이 주를 이룬 반면 점차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가면서 적응이 이루어지는지 그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적응과정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적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와는 사회문화적 배경 및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규범이 상이하며 이혼 및 재혼의 일반성 정도에서 큰 차이나는 우리나라의 가족에게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그대로 적용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문헌들을 중심으로 재혼가족의 적응과정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혼가족을 보는 관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있으나 서구에서는 재혼을 이혼으로부터의 궁극적 적응으로 보며(Price & McKenry, 1988), 재혼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많이 사라져서 이혼후 평균 약 4년 이내에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혼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재혼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혼의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재혼의 보상benefit과 비용cost이라는 관점을 함께 다루고 있다.

보상적 측면을 개인수준에서 보면 재혼은 부부가족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혼자 사는 어려움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할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편부모로서 부딪치는 문제를 완화 혹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현실적 대안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유자녀 이혼여성의 재혼율이 무자녀 이혼여성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U.S. Bureau of Census, 1990). 편부모 가족을 수년동안 관찰한 Weiss(1975)는 편부모들은 혼자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가족의 요구에 책임을 지면서 경제활동도 해야하고, 혼자서 자녀에게 양부모의 애정,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적 과부하 상태에서 시달리는 것을 보고하였다. 재혼은 이러한 과다한 짐의 무게를 나누어줄 사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혼과 함께 경험하였던 상실, 외로움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여성에게는 특히 재혼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매우 실제적 해결책인 경우가 많아 편모의 경우 재혼과 함께 경제적 형편과(Folk, Graham & Beller, 1992)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Hill, 1992)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Weiss(1975)가 지적한대로 전혼이 '불행한 결혼'이었고, 결혼의 어두운 측면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했던 경우라도 이혼후 약 1년 정도 경과되면 삶을 재구조화 하고자 하는 시도로 재혼을 고려하게 되는 듯 하다.

재혼가족의 다양성

앞에서 지적한대로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으로 보는 관점은 많이 지양되고는 있으나 재혼가족에 내재되어 있는, 초혼가족과 다른 여러 특성상, 재혼가족의 구성원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초혼가족에 비하여 많은 적응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선행연구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혼가족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지향적 관점에서 초혼가족과 재혼가족을 비교하는 초기의 이분법적 접근은 재혼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재혼하는 당사자들의 전혼경험 여부, 전혼자녀 유무, 재혼시 자녀의 발달단계, 자녀의 양육권의 소재 및 동거여부, 재혼 부부의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전혼자녀의 비동거 친부모와의 접촉빈도 등에 따라 각 재혼가족의 성격, 관계의 복잡성, 역동성, 주된 긴장원의 소재 등이 매우 다를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Ihinger-Tallman & Pasley(1987)는 자녀유무, 자녀 동거여부, 자녀와의 관계라는 3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재혼가족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Robinson(1980)은 친부모의 결혼지위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가하면 Giles-Sims(1984)는 별거부모와의 접촉빈도, 정서적 유대를 기준으로 하여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재혼가족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따라서 연구설계 및 결과의 해석에서 이러한 집단내 다양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재혼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는 재혼가족 연구가 기초하는 이론적 관점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결손모형가설 deficit comparison model'으로 대표되는 문제지향적 관점이 지배적일때는 이론바 정상가족intact family과 재혼가족을 여러 측면에서 집단간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들어 적응적 관점에서 재혼가족을 연구하게 되면서 비로소 집단내 비교방법within group comparison을 통하여 재혼가족의 다양성과 그에 따르는 상이한 적응과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체계이론, 가족발달이론, 교환이론 등 다양한 이론틀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재혼후 적응과 관련된 요인 탐색작업에서 변수들의 영향력의 정도, 방향성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서구의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실증연구들이 연구설계나 해석에 있어 이러한 재혼가족내 다양성을 간과한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전술한대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실증연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유형화 노력과 유형별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적응의 개념 정의와 분석단위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소재에 따라 적응개념의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따라서 분석단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자녀의 적응은 주로 심리적 적응으로 개념화되어 자존감, 자아개념, 주관적 안녕 등으로 측정되거나, 학업성취도나 문제행동 등의 행동결과(outcome)를 가지고 파악된다.

그런가하면 재혼가족의 계모들을 연구의 초점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정도, 그리고 이에 계모가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살피는 연구들도 진행되어오고 있다. 개별구성원의 적응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나 여성과 같이 특정 대상이 재혼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하부체계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특성상, 가족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더라도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가족원이 한명이라도 있게되면 재혼가족 전체의 행복감,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수준의 적응을 다루는 연구에 비하여,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와 같은 가족체계 내의 하부체계의 적응이나, 단위로서의 가족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단위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가족정체감의 발달, 새로운 가족 고유의 상호작용 패턴의 수립, 가족원간의 높은 유대감 형성 등을 적응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재혼가족의 부부관계의 적응은 결혼만족도나 부부간 유대감 형성정도로 개념화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결혼만족도를 초혼가족과 비교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적응정도에 있어 재혼가족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적응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재혼과 함께 의붓형제관계를 가지게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기때문에(Lutz, 1983) 형제관계에서의 적응은 유자녀 재혼가족에 있어 중요한 적응과제인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자녀적응에 대해서는 Papernow (1993)가 발달과업을 가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일곱단계로 개념화하는 발달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초기의 삼단계는 비현실적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 이러한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는 단계, 그리고 현실적 인식으로 대치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에서 느끼는 실망감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때 가족원간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Papernow는 이러한 초기 단계를 거친 후 사소한 문제들로 자주 충돌하고 계부모-자녀간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고, 재혼가족내에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자리잡아가는 중간단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로 보았다. 중간단계의 발달과업은 각각의 재혼가족에 적합한 생활양식, 행동규범, 관습, 가족의례 등을 발달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원간에 친밀성, 애착이 형성되고 가족원으로서 유대감, 소속감을 느끼며, 가족 나름대로의 역사family history를 갖는 가족정체성이 확립되는 궁극적 적응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적응을 어떤 상태, 결과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전체를 적응으로 개념화하는 입장인 것이다.

재혼가족의 특성

가족학에서는 가족형성 초기의 경제적, 성적, 인격적 적응이 성공적 결혼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혼가족도 초혼가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의 적응이 요구된다. 또한 끊임없이 발달, 변화하는 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성상 초기 적응 이후에도 계속 접하게 되는 여러 발달과업들을 완수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를 조정,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초혼가족과 동일하다. 그런데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구별되는 재혼가족 공통의 몇가지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자체가 재혼가족이 적응하는데 부가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재혼가족의 적응과정과 관련요소를 논의하는데 필요하겠다.

먼저 재혼가족의 적응을 쉽지않게 하는 특성으로,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달리 가족형성기부터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 많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먼저 이혼과정을 통하여 겪었을 상실감, 외로움, 심리적 고통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아직 미해결된 감정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전혼가족에서 형성된 가족문화, 익숙해진 생활양식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후 재혼할 때까지 편부/모 가족 형태로 살면서 시작된 문제들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편견, 스테레오 타입 등도 재혼가족이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되겠다.

그런가하면 재혼가족은 초혼가족에 비하여 가족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몇가지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구의 논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가 초혼가족을 규범적으로 보고 모든 논의가 초혼가족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혼가족관계에서 적합한 행위양식,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확한 문화적 각본이 없이 개별가족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조정, 적응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이는 긴장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Cherlin(1978)은 재혼가족이 초혼가족보다 불안정성이 높은 원인을 재혼가족의 이런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불완전한 제도 가설' incomplete institution hypothesis을 제기한 바 있다.

재혼가족에 관한 사회적 규범체계의 부재는 가족내 역할의 모호성이라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특히 계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이혼 및 재혼의 일반화가 훨씬 진행된 서구에서조차도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부재를 특히 부모

역할의 어려움과 연결하여 지적하고 있다. 많은 실증연구들이(Giles-Sims, 1984; Schwebel, Fine, Renner, 1991) 계부모 역할의 모호성이 유자녀 재혼가족의 가장 큰 긴장원이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계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훈육에 있어 어느 정도 엄하게 혹은 허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가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가족원간에 이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것으로(Cherlin, 1978; Ihinger-Tallman & Pasley, 1987; Visher & Visher, 1983; Crossbie-Burnett, 1994) 나타난다. 재혼가족에 있어서의 적절한 행동규범에 대한 잘 짜여진 문화적 각본이 부족하고 따라서 개별가족이 역할의 내용을 두고 일상에서 협상, 조정과정을 거쳐야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자체가 긴장, 갈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의붓관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행동규범, 문화적 가이드라인의 부족은, 비혈연관계의 이성 가족원들간의 성적긴장을 방지하는 문화적 기제의 부재로도 연결된다.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에서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성원들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되면서 이들간의 성적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재혼가족에서 아들에 비하여 딸이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Lutz, 1983), 계부-딸관계의 질이 계부-아들관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들(Clingempeel, Ievoli, Brand, 1984; Peterson & Zill, 1986; Crosbie-Burnett, 1994)은 그에 대한 설명의 하나로 계부-딸간의 성적긴장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재혼가족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규범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많은 재혼가족에서 경험하는 가족범주(family boundary)의 모호성 문제와 또한 연결된다. 서구의 학자들은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 구성원간에 의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서 가족의 경계설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 부모와 친부모 사이를 오가게 되면 가족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크게된다. 이러한 가족 역동성을 Ahrons(1979)는 이중핵가족 가구(binuclear famil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별후 재혼과 달리 이혼후 재혼은 재혼가족 외부에 자녀와 혈연관계를 가진 전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명의 아버지 혹은 두명의 어머니를 갖는, 즉 두개의 가족에 속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ross(1987)의 연구에 의하면 재혼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정의하는 자녀들은 13%에 불과하였고 이혼전 친부모를 자신의 가족으로 고집하는 경우가 33%, 함께 사는 친부모만을 가족에 포함시키고 같이 사는 계부모나 비동거 친부모를 가족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25%, 그런가하면 28%의 아이들은 친부모, 동거하는 계부모를 모두 가족범위에 넣고 있었다.

부모의 재혼결정과정에서 자녀가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재혼가족의 일원이 된 경우에 있어서, 자녀가 재혼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심리적으로 원하지 않을때 가족 범주의 모호성 문제는 특히 심각해질 수 있겠다.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계부/모에게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서 친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양가적 감정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줄이려는 경

향도 있고,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분노, 실망, 상처 등을 계부/모 탓으로 돌리거나 계부/모를 향하여 발산하여 재혼가족내 부모-자녀관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도 재혼가족 밖에 있는 친부모/전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불행 가족 범주의 모호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겠다.

부모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 범주화에 있어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자녀와의 유대형성, 관계의 발전을 통하여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혈연 부모에 대한 애정을 고집하며 재혼가족의 범주를 벗어나는 원심력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통제없이 허용해버리는 계부/모도 있다. 재혼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기능적으로나 일상에서 노력을 통하여 가족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재혼가족은 계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도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혼가족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가족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성이다. 초혼가족은 가족의 형성, 규모의 확대가 가족발달주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유아녀 재혼은 많은 경우 편부/모가정에 외부인 혹은 다른 편부/모가족이 편입 내지 합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기존의 익숙한 가족내 역할구조, 권력구조, 자원 분배 방식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갑

작스러운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큰 변화이다.

특히 여성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애착, 유대관계를 형성해야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남성에 비하여 더욱 심하게 느끼며 이는 재혼적응과정에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역할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재혼가족을 이루자마자 전면적 양육책임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일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며, 재혼가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로서의 불만족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그날부터,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아 심리적으로는 아직 외부인인 사람들과 부/모/형제 관계를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큰 변화를 한차례 겪은 후, 편부/모와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는 중에 다시 부모의 재혼이라는 또다른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어찌보면 양친부모 가족에서 편부모가족으로의 적응에 시간과 심리적 노력이 투자되었던만큼, '새로운 부/모/형제관계'에의 적응은 더욱 쉽지 않을수 있다. 예를 들면 재혼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새로운 가족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편부/모 가족에서 종종 부모의 주된 의논상대, 심리적 의존처 역할을 하면서 강화되었던 부모와의 유대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재혼

가족이 재혼후의 생활 및 변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혼준비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는율도 매우 낮고 친구나 주위 사람에게 재혼결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의하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Ganong & Coleman (1994)에 따르면 새로운 가족생활에 있어서 예견, 혹은 조정해야 되는 재정적 문제에 관하여 재혼 전에 미리 의논한 응답자는 조사대상자의 1/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혼에서의 자녀에 관해 의논을 한 경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하였다. Ganong & Coleman은 이러한 준비부족의 원인을 재혼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의 한편에, 재혼 생활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 문제라 하더라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경향 때문 아니었을까 하는 회피가설(avoidance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 중에서, 인성적 결함이나 알콜중독 같은 개개인 수준의 문제를 제외한 기타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 가능한 성격의 것들이라는 임상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해 볼 때 재혼가족의 이러한 준비부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성공적 적응을 위하여: 관련요인의 고찰

재혼가족의 적응관련변수를 탐색하는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특성들이 적응에 성공적인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을 구별짓는 주요 요인인가를 밝히는 것

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재혼가족의 적응에 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구에서도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을 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나, 재혼가족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변수, 그리고 가족구조적 특성등 다양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는 주요 요인들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성(gender), 자녀 양육권 소재, 자녀의 친부모와의 접촉빈도, 전배우자와의 접촉빈도 및 관계, 친족으로부터의 지원, 전혼의 성격,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결혼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Ganong & Coleman, 1994).

그러나 같은 변수를 놓고도 영향의 정도, 방향성에 있어 일치되지 않는 분석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우선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전술하였듯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재혼가족에 대한 서구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나마 초기연구들은 재혼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초혼가족과 재혼가족 집단간 비교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적응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혼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는 상당정도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결혼의 질에 있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비교하는 내용들이었다. 두 집단간에 결혼만족도나 적응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은(Ganong & Coleman, 1994) 재혼가족의 이혼율이 초혼가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추세와는 모순되는 방향이었고, 따라서 재혼가족의 불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촉발하였다. 그런데 '초혼가족과 동일한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재혼가족이 왜 더 불안정한가?'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이러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성공적 적응을 이끄는가?'하는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은 성공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들을 일관성있게 밝혀낼 정도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연구마다 이용한 종속변수나 독립변수가 상이하다는 점도 연구결과와의 비교 및 축적을 어렵게 한 요소이다. 또한 소규모 표집문제나 임의표집의 대표성 문제, 적응의 개념정의에 있어서의 불일치 등 대부분의 재혼연구가 가지는 방법론적 제한점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일치되는 결론을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응과정 자체가 극히 복잡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할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 이유로 인하여,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일치되는 결론을 내린 변수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지적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적응에 있어 성차의 존재이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Emery,1988), 어른의 경우에도 계모가 계부에 비하여 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Hobart,1987; Ihinger-Tallman,1988). 계모는 계부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자신의 역할에 대

한 불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Ahrons & Wallisch,1987), 이는 양육, 훈육을 직접 담당해야 하는(Ahrons & Wallisch, 87 in Decade) 계모의 역할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가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계모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계모의 적응이 힘들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딸을 가진 경우 계모의 스트레스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Adams,1982), 이 또한 딸이 아들보다 생모와의 애착형성 정도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남자들이들에 비하여 여자아이들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움다는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그래서 계모-딸관계가 적응에 가장 어려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계부모-자녀관계는 갈등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Ferri,1984) 가장 주된 긴장원으로 작용하기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 재혼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Crosbie-Burnett,1984).

친모와 방문, 접촉이 잦을수록 계모-자녀관계가 나쁘다는 연구결과(Furstenberg & Nord,1985), 친부모와의 접촉빈도가 계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서 재혼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함께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에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친부/모를 만날수 없다는 점 자체가 아이들에게 문제이며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친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로 부각되는 경향을 관찰하고 Walsh(1992)는 적정수준의 접

측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친부/모와 접촉이 감소하고 계부/모가 친부/모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계부/모-자녀간의 유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Hobart, 1987).

발달적 관점에서 재혼기간에 따른 적응 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재혼가족 형성 초기에는 친부모로부터의 단절, 새로운 가족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그리고 과거 가족에 대한 낭만화된 기억 등의 문제와 함께 계부/모에 대한 호칭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긴장원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계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며(Clingempeel & Segal, 1986)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재혼가족 일상의 구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Walsh, 1992). Quick & Newman (1992)도 2년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스트레스 수준 완화의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가하면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성은 계모역할에 대하여 낙관적 견해가 줄어들고 덜 긍정적 태도를 점차 형성하게 되며(Guisinger et al., 1989), 계부/모-자녀관계가 나빠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 상에서 볼때는 특히 청소년기가 계부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나타난다(Crosbie-Burnett, 1994).

한편 계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하여 배우자가 얼마나 지지적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Goodman-Lezin(1985)은 이러한 지지적 태도가 계모의 어머니 역할행동에 일종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는 계모의 역

할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서 계모-자녀 관계에 상호존중,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나서, 계부의 아버지역할에 부인이 지지적일수록 재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Ganong & Coleman, 1994).

이와 함께 재혼부부간에 강한 유대형성이 재혼가족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된다. 긍정적 계부/모-자녀관계의 형성 및 발달에 도움을 주고, 기타 다른 가족원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Ganong & Coleman, 1994). 이때 자녀가 계부/모를 침입자로 보지 않도록 애정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Cissna, Cox, & Bochner(1990)는 질적연구를 통하여 두 가지 종류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과업이 부부간 유대의 형성에 필수적임을 관찰하였다. 첫번째 과업은 자녀들에게 이들의 결혼관계가 얼마나 결속력을 가지는가를 인식시키는 작업으로, 부모들의 삶에 있어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녀들에게 대화를 통하여 전달하고, 부부로서 자녀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의 권위확립, 특히 계부모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이 적응적 부부관계의 발달에 필수적인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의사소통, 열린 대화가 재혼가족의 적응에 중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가족원간의 열린 대화는 성공적 재혼가족의 중요한 자원으로(Crosbie-Burnett, 1994), Ihinger-Tallman(1988)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할수록 계부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재

혼가족은 모든 가족이 발달주기를 거치면서 겪게되는 규범적 스트레스원뿐만 아니라 재혼가족의 독특한 스트레스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재혼가족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대처행동 중 하나가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러한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이혼을 하게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Visher & Visher, 1983), 실제 이러한 회피적 대처행동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열린 대화와 대화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재혼가족은 초혼가족에 비하여 문제해결력이 낮고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기술이 부족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기능적 재혼가족은 대화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이 초혼가족보다도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nderson & White, 1986).

한편 Crosbie-Burnett(1994)는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위기 및 대처모델에 근거하여 적응을 도울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고찰하였다. 이들은 재혼을 가족주기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적 위기사건이라고 보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혼에 대하여 가족원이 부여하는 의미, 즉 '주관적 해석'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적응양상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적응을 촉진할 자원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의 자정심, 통제감(Pearlin & Schooler, 1978)과 같은 인성변수를 들었고, 가족원 공동의 이해와 가치관의 공유, 소속감, 애정,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을 가족단위의 자원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재혼가족

은 그 특성상 초혼가족에 비하여 이러한 가족단위의 자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족원들이 재혼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재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특히 부모와 자녀간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자녀들은 종종 재혼을 친부모들간의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거나 계부/모를 자신과 친부/모와의 사이에 끼어든 침입자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편부/모 가족으로 생활하는 동안 부모의 조인자, 친구 노릇을 하면서 강한 유대를 형성했던 자녀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높다고 한다(Visher & Visher, 1979).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의 고찰 결과를 요약하자면, 앞에서 재혼가족의 내재된 특성으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완화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잘 적응하여 행복한 재혼가족은 대부분 가족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계부모-자녀간의 이해와 유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균형, 가족원간의 효율적인 대화등을 그 공통된 특징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건설적인 가족의례를 발달시키는 노력등도 가족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Visher, 1990; 임춘희, 1996). Pasley & Ihinger-Tallman도 가족정체성의 확립, 재혼가족내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 규칙, 기대의 명료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가족범주의 재정의 등을

성공적인 재혼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맺는 말

지난 20여년 동안 서구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논의와 실증연구들이 양적, 질적 수준의 급증을 보였다. 이들을 모두 고찰한다는 것은 한편의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는 적용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쟁점들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서구에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방향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변수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망라하여 고찰하는 방식은 피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재혼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재혼가족이 초혼가족과 근본적인 방식에서 다를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혼가족이 겪는 어려움에는 역할모호성과 같이 재혼가족의 내재적 특성상 필연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잘 준비하면 피할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다(Crosbie-Burnett, 1994).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재혼가족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선행연구들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체의 부족을 이러한 준비부족의 한 원인인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이들 가족이 예방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준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준비시키는 교육, 상담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Furstenberg & Spanier(1984)는 전반적 복지감에 있어 재혼가족과 초혼가족 사이에 별 차이가 없고, 결혼의 질이나 안정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극히 작아서 그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재혼가족간의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 재혼가족의 기능성을 평가하여 초혼가족과 비교한 Peek등도(1988) 재혼가족이 초혼가족보다 응집력이 떨어지지만 이들 재혼가족의 수준도 '기능적'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연구자들은 재혼가족이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점을 '재혼가족이 역기능적이다'고 해석하기보다 그 기능패턴 자체가 초혼가족과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연구자들이 이러한 지적을 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재혼연구가 양적 중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똑같은 문제점,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혼가족을 비교기준으로 하는 분석틀을 가지고 재혼가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서 벗어나서, 재혼가족 고유의 기능패턴과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본다.

이러한 작업이 축적될 때 비로소 초혼가족에게 적용되는 분석틀이 아니고 재혼가족의 경험에 기초한 적용이론을 만들수 있게될 것이며 재혼가족의 건강한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과 역동적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 적응을 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재혼의 긍정적 측면을 함께 탐색하는 심층적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조사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1인 이상 가족원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거나 전체가족을 관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혼기간, 재혼시 연령, 자녀동거 여부 등과 같이 재혼가족의 구조적 복잡성, 다양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재혼가족간의 차이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연구설계에 포함하여 이러한 차이가 재혼가족의 기능, 적응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하루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서구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제한점, 그리고 시사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앞서서도 누차 지적하였듯이 서구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재혼가족을 돕는데 그대로 쓰일수 있다고 볼수 없다. 유난히 혈연지향적인 가족문화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가부장적 직계가족원리 등 우리나라 재혼가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다. 이들 재혼가족들의 적응을 도울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속히 나서야할 때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임춘희, (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1995), **인구동태통계연보**
- Adams, D.J.(1982), *A Comparison of Confidence and Degree of Contentment in Parental Role on Custodial and Noncustodial Stepmothers*. Unpublished doct, diss, Fla, State, Univ, Tallahassee, FL.
- Ahrons, C.R. (1979), The binuclear family, *Alternative Lifestyles* 2, 499-517
- Ahrons, C.R., Wallisch, L. (1987), Parenting in the binuclear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biological and stepparents In Pasley & Ihinger-tallman 1987.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Guildford
- Anderson, J. Z., and White, G. D., (198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Patterns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Nuclear Families and Stepfamilies*, *Family Process*, 25, 407-422
- Burnnett, M.C., (1994), *Remarriage and Recoupling in Mckenry, P. C., & Price, S.J.(eds), Families and Change*, Sage, Thousand Oaks,

- CA.
-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634-650.
- Clingempeel, W., Ievoli, R., and Brand, E. (1984). Structural Complexity and the quality of Stepfather-Stepchild Relationships. *Family Process*, 23, 547-560
- Clingepeel, W.G., Mark, F., and Brand, E. (1987). Research on Stepfamilies: Paradigmatic Constraints and Alternative Proposals,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4, 229-251
- Coleman, M. & Ganong, L. H. (1991). Remarriage and Stepfamily in the 1980s in Booth A. (eds.), *Contemporary Families*, Minnesota, NCFR, pp. 192-207
- Coleman, M., & Ganong, L. H. (1990).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the 1980s: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 Crosbie-burnett, M (1984). The Centrality of the Step Relationship: A Challenge to Family Theor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33, 459-464
-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ery Park, CA: Sage
- Folk, K.F., Graham, J.W., Beller, A. H. (1992). Child Support and Remarriage, *Journal of Family Issues*, 13(2), 142-157
- Fursenberg, F.F and Spanier, G. B. (1984). The Risk of Dissolution in Remarriage : An Examination of Cherlin's Hypothesis of Incomplete Insitutionalization, *Family Relations*, 33, 433-441
- Furstenberg, F.F. Jr., Nord, C.W. (1985). Parenting apart: patterns of childrearing after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893-904
- Ganong, L. and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 Sage Publications.
- Giles-sims. (1980). *Stepfamily cohesion, expressiveness and conflict by stepfamily outside parent relationship*. Presented at the Natl. Counc. Fam. Relat. Meet, October, San Francisco.
- Goodman-Lezin, S. (1985). Selected Variables Affecting Role Satisfaction and General Well-Being in Stepmothers, Unpublished diss, Calif, Sch, Prof, Psychol, L. A., C.A.
- Gross, P. E., (1987). Defining post-divorce Remarriage Families : A Typology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Journal of Divorce*, 10, 205-217
- Guisinger, S., P.Cowan, and D. Shuildeberg, (1989). Changing Parent and Spouse Relations in the First

- Years of Remarriage of Divorced Fathers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45-456
- Hill, M. S. (1992). The role of economic resources & remarriage in financial assistance for child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158-178.
- Hobart, C. W.,(1987), Parent-Child Relations in Remarri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8 , 259-277
- Ihinger-Tallman, M. I., & Pasley, K.,(1987), *How Parents Adjust, in Remarriage*, Sage, Newbury, CA.
- Ihinger-Tallman, M. I., & Pasley, K.,(1987),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rocess, in Remarriage*, Sage, Newbury Park, CA.
- Ihinger-Tallman, M.I.,(1988), Research on Stepfamil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25-48
- Ishii-Kuntz, M., and Ihinger-Tallman, M.(1991), The Subjective Well-being on Par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58-68
- lingempeel, W.G., Segal, S.(1986) Stepparent-stepchild relationships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stepmother and stepfather families. *Child Development* 57, 474-484
- Lutz, P.(1983), The Stepfamily: 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367-375
- Morrison, K., & Stollman, W.,(1995) , Stepfamily Assessment: An Integrated Model ,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4(1), 163-182
- Papernow, P. (1993). *Becoming a stepfamily : Patterns of development in remarried families*. New York : Gardner
- Peek, C., N. Bell, T. Waldren and G. Sorell(1988), Patterns of Functioning in Families of Remarried and First-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99-708
- Peterson, J. M. and Nicholas Zill,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ill, C.(1990), "Stepfamilies: Redefining the Family", *Family Relation*, 39, 186-193.
- Price, S. J. and Patrick, C. McKenry. (1988). Current trends and issues in divorce : An agenda for family scientists in the 1990s. *Family science Review*, 2, 219-236.
- Schwebel, A., Fine, M. and Renner, M. (1991). A study of perceptions of the stepparent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12, 43-57.
- Visher, E.B. and Visher, J.S.(1979), *Stepfamilies : A Guide to Working With Stepparent and*

- Stepchildren*, New York : Brunner/Mazel
- Visher, E. and Visher, J. (1983). Stepparenting : Blending family in H. I. McCubbin and C. R. Figley. (Eds),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 Brunner/Mazel.
- Wallerstein J.S.,(1987), Children of Divorce : Report of a Ten-Year Follow-Up of Early Latency Ag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7 (2),199-211
- Walsh, W. M.,(1992), "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709-715

The adjustment process of post-divorce remarried families

Gyoung-hae Ha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critically review the previous researches on remarried families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se familie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systematic empirical studies examined the issue in Korea despite of the fact that post-divorce remarriage rate was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us studies done in Western countries were mainly reviewed. It was found that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ers were taking normative-adaptive perspective instead of problem-oriented perspective. However, enormous complexities of remarried family forms were still frequently ignored by many researchers. There was also a lack of studies which specifically examined the adjustment process within remarried families. Correlates of post-divorce remarriage adjustment which were considered as salient factor in previous researches were reviewed. Finally, some of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of previous studi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Adjustment of post-divorce remarriage • Cost and benefit of remarriage • Diversity among remarried families •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emarried families • Correlates of remarriage adjustment

토론 : 이혼후 재혼 가정의 부모-자녀 적응

박 성 연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주제의 민감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관심 부족으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혼후 재혼 가정의 부모-자녀간 적응 문제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신 발표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발표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발표자가 토로하였듯이 본 토론자도 서구연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히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재혼가정을 보는 시각의 변화, 재혼가정 특성의 다양성 및 재혼가정 적응의 분석단위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후 재혼가정의 일반적인 적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나, 아동학자의 시각에서 발표자의 원고를 보고 느낀 두가지 아쉬운점을 지적하고 보완함으로써 본 주제에 대한 시각을 다소 넓혀보려고 한다.

첫째, 발표자는 적응의 개념 및 분석단위에 대해 제시하고 재혼가정의 유형별 다양성에 따라 적응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재혼 가정유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

고 있다. 물론 발표자가 주장하였듯이 이보다 우선 실태파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본 심포지엄의 주제가 '재혼가정의 부모-자녀 적응' 이므로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재혼가정의 다양성에 따른 구체적인 재혼상황에서의 부모-자녀 적응에 초점을 두어, 가능한 문제점과 적응을 논의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즉 여자가 편부가정 형태에 흡수되는 계모가정과 남자가 편모가정에 흡수되는 계부가정에서 나타나는 적응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또한 계모가정과 계부가정에서 친부와 계모, 친모와 계부의 부모-자녀 관계는 각기 다른 식의 변화와 적응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발표자는 재혼가정의 적응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특히 재혼가정이라는 자체가 가진 특성을 중심으로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많다'는 점 가족원들간의 역할의 모호성, 가족범주의 모호성 및 단시간의 적응부담 등 재혼가정의 일반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적응상의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즉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들은 재혼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이든지 안고 있는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재혼 가정에서는 부모-자녀간 적응이 잘 이루어 지는가? 하는 문제에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재혼가정의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 적응문제는 가족 단위의 역동성에 근거한 분석보다는 부모나 자녀 어느 한쪽 개인 수준에서의 적응만을 다루어왔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혼가정의 가족과정 (family process)이나 관계발달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정의 여러 상황과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모델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재혼가정의 부모-자녀 적응은 제도적이거나 일차원적인 측면 보다는 자녀와 부모(계부모, 친부모 모두)의 각각의 발달적 특성이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역사 및 주변상황과의 상호작용등 가족을 중심으로한 제하위 체계들간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발달적 관점, 가족체계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혼 가정의 각 유형에 따라 가족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에서 가족원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재혼가정의 부모-자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적관점에 의하면, 자녀의 연령과 성은 부모-자녀 적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인이어서 재혼가정의 적응은 특히 사춘기와 같은 발달적인 전환기에 더 심각하다. 계모가정보다 계부가정의 경우, 사춘기에 있는 아들과 계부와의 관계는 물론, 어머니와의 관계조차 더욱 악화되며, 딸의 경우도 그동안 좋았던 어머니와

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계부와는 성 문제로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하므로써 부부간의 적응도 나빠질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친부모-자녀 간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혼가정에서는 부모의 행동을 조정하는 아동의 성격적 특성이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부모-자녀관계와는 달리 재혼가정에서는 그 관계가 대체로 약하며 재혼가정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예로, 재혼한 부부간에 적응이 잘되어 부부관계가 좋으면, 계부가정의 경우는 부모-자녀관계가 대체로 좋아지나, 계모가정의 경우는 계모-아들 관계는 좋고, 계모-딸 관계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부모-자녀 적응에있어 가족관계의 역동성이 관련된 다. 이같은 가족 체계내의 역동성을 고려해 볼때, 재혼가정에서의 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애정적인 양육행동이나,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며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지원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부모 자녀 모두의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생태학적 접근에 의해 시사 받을 수 있듯이 재혼가정의 부모-자녀 적응은 친구나 교사, 친척등의 사회적 지지원들의 보상적 역할을 통해 탄력성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나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지망의 형성여부가 재혼으로 인한 적응상 문제를 완충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혼후 재혼가정의 자녀의 연령과 재혼후 경과시기, 가족내·외의 역동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혼후 재혼 가정의 부모-자녀 적응은 자녀의 성격이나 재혼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온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재혼의 부모-자녀 적응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이나 개인의 행동을 발달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의 대물림이나 이혼후 재혼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상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토론 : 이혼후 재혼 과정의 부모-자녀 적응

이 숙 현

연세대 아동학과

한 교수의 논문은 재혼 가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 학계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촉매 작용을 하리라 기대된다.

이혼율이 높은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재혼이 이혼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 중 3/4이 다시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혼이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통계청, 1995) 이혼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재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특히 여성의 재혼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1980년 4.1%에서 1995년 7.5%로 증가, 여성통계연보, 1996) — 재혼 가족은 주목 받을 시점에 있다 하겠다.

한 교수의 글에서 재혼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의 변화, 재혼가족의 문제, 그리고 성공적 적응을 위한 관련 요인들이 다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논의와 재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게 해 줄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재혼 가족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재혼 가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이들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는 고정 관념에 대해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작업이 이런 고정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가족 스트레스 모델로 알려진 ABCX Model에 따르면, 한 가족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A)이 일어날 때, 가족 구성원들이 그 사건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 정의하느냐 (B),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원 (C, 개인 자원, 가족 결속력, 사회적 지원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족은 그 사건을 잘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 이 모델에 근거해 우리 사회의 재혼 가족에 대한 편견을 재고해 보면, 이런 편견들은 계모나 계부, 그리고 계자녀의 재혼에 대한 정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고,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재혼 사실을 주위에 덜 알리게 하고,

더 나아가 이들 주변의 친척, 이웃의 도움을 줄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편견이 B, C요인 모두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은 상당히 중요하다.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의 근절은 계모나 계부로 하여금 긍정적 정체감을 쉽게 형성하게 할 것이며, 계자녀들보 하여금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여 계모/ 계부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가족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들 재혼 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일반 아동들에게 계모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전래 동화나 외래동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새로운 동화의 보급이 요구된다. (예 : 공지영 작 "미미의 일기"). 또 TV 등 대중 매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족학자들이 종단적 연구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시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 배우자와의, 친부/ 모와의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은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여기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편입되어 재구조화를 겪게 되는 재혼 가족에게 있어 초기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은 피해 갈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혼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다른 재혼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연구 결과들이 일반인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종합토론 : 건강한 가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곽 배 희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가정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그들의 후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제공하여 주는 산실이기도 하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정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형제 자매와 더불어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 형제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갖게 된 생활 습관이나 성격, 행동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렇게 보면 실로 인간에게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며 일생동안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깊이 각인된다.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남편과 아내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일 경우, 그로 인해 자녀가 받게되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은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막대한 시장을 줄 것이다.

장차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나와 이웃과 관계 형성, 나아가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과 역할 분담, 뿐만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부모의 행동과 성격, 사고방식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부부간의 윤리, 나와 가정, 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익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한데 이와같이 인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곧 혼인생활에 이상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사항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가정 법률 상담소에 나타난 통계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더 이상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을 만큼 부부간 갈등이 심화될 때 혼인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부부사이에서도 점점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통계를 보면 혼인을 한지 1~2년만에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내담자가 1950년대 후반에 3.0%로 그후 차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결혼에 임하는 결혼 적령기의 남자와 여자의 마음가짐이다.

즉 결혼이란 무엇인가? 왜 결혼을 하는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 결혼에 대한 조건적이고 본질적인 깊은 생각 없이 결혼을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혼만 하면 행복도 저절로 오고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일가 친척, 부모형제와의 관계도 저절로 원만하게 형성,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철없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태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혼 초에 벌써 결혼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시련에 부딪쳐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는 결혼 후 여러 가지 갈등에서 오는 어려운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가정불화의 늪 속으로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전에 이미 가정 파탄의 요인을 안은 채 결혼에 임하는 결혼 당사자들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면 그들의 자세 역시 가정파탄의 지속적인 요인이 된다.

즉 외형상으로 나타난 교육 수준은 최고에 있는데 워낙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철저하게 남성위주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남자와 일부 여성들의 생각과 의식은 아직도 봉건시대에 머무르고 있어 평등한 인간적 관계로의 성숙보다는 부부사이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추세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처함은 물론 거기에 따라 생각이나 의식도 훨씬 남성들을 앞질러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도 의식도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여자들에 비해 지식수준만 높을 뿐 생각과 의식은 전혀 시대의 흐름을 좇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과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보여주던 그런행동과 사고방식을 본받아 아내에게 그대로 행한다면 필연적으로 가정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남성들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요구에 순순히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현대에 맞는 남성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자녀들을 기르는 데에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의 교육과 성장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상담소를 찾아오는 내담자들 중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특히 어머니

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 심지어 잠자리에서의 일까지도 세세히 전화로 보고하거나 한 가지 사소한 일을 다 보고한 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서야 행동으로 옮기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 양가부모에게 알려지고 확대되어 건잡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로 발전되며, 두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부부가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시집이나 친정이 개입하여 사소한 일을 확대시키고 가정 파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과잉보호를하여 길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 어떤 자리에서나 자기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면서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배우자와 부모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 이때 남편의 중립적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짐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모와 아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면 그로 인한 가정불화는 줄어든 것이다. 부모 또한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예로 시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의사나 감정에 따라 아들 내외를 이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잘

못된 사고 방식이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며느리의 월급 봉투까지 시어머니가 관리하여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문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남편 월급은 남편 혼자 다 쓰게 두면서 아내 월급만 가지고 살림을 하고 경제권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경우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는 것이다.

부모 부양 문제 또한 심각한 가정문제 중의 하나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장남만이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장남이든 막내든,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데 부모의 고루한 사고방식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식들의 생각 때문에 장남만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하고 모든 형제 자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떠 맡기기'가 심심치 않게 가정파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장남이건 막내건,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이라면 누구에게나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부부가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 가정이 파탄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부부가 꼭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남편과 아내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음과 이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폭력을 쓰면 안될 것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가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이제 단순히 가정문제의 범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 생활이며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소집단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의 구성원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다. 사회 구성의 기본 집단인 가정에서 질서와 조화와 평화가 깨질 때 사회 전체가 질서와 평화를 잃게 된다. 가정의 평화가 깨질 때 사회 전체가 질서와 평화를 잃게 된다. 가정의 평화가 곧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가정에서의 분쟁은 인류에게 분쟁을 가져온다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가정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치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하여 '가정이란 이러해야 한다'고 어떤 틀을 만들 수도 없다. 그 틀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고 모법적인 가정상을 확립

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권위주의에 항수를 느껴 그것에 집착하는가 하면, 한 편에서는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핵가족 형태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고 모법적인 가정 상이 정립되지 못한채 우리의 가족윤리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앞으로 끊임없이 가정의 본질과 이상적인 가정상에 관한 논의가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이 명백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전환기의 우리 가정이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에이브리의 시를 소개한다.

혼없는 신체가
사람이 아니듯
사랑없는 가정은
결코 가정이 아니다.

종합토론 : 바람직한 가족문화 창출을 위한 제안

김 양 희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산업기술의 발달과 노동 형태가 가족형태를 결정하게 되므로 미래의 가족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될 것이며, 가족의 기능 및 역할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가족 평균인원은 1990년에 3.8명으로 도시화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2명 가구나 3~4명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2세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1990년 67.5%로 나타나 가족의 세대구성은 단순해지고 있다. 가족 기능도 변화되어 과거 가족에 있어서 중심기능이었던 의식주 공급기능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함께 가정 밖의 기관으로 이전되었고, 심지어 자녀양육과 교육의 기능도 많이 약화되어 현대가족은 휴식의 기능과 자녀출산 및 애정의 기능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가족가치의 영역에서도 결혼·가족역할 분담·자녀관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결혼연령은 높아지고, 배우자 선택방법도 순수 중매혼에서 중간적 형태나 연애를 통한 당사자 선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배우자 선택기준도 가문, 학력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시하기 보다는 가치

관, 인성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수직적 부부관계는 오늘날 평등주의적·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의 가부장제 가족제도 아래에서 가정생활의 모든 권위와 결정권이 가장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요즈음에는 부부공동결정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에서는 역할분담의 뚜렷한 구분이 약화되어가고 부부가 상호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과 노후의존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자녀양육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자녀를 통한 자신의 자아발전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들도 결혼한 장남과 동거하기를 희망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높아 자녀에 대한 노후의존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가족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변화들은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가족은 새로운 가족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앞에 전개될 새로운 가족형태는 전통사회의 대가족도 아니며, 산업사회의 고립된

핵가족도 아닌 새로운 가족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공동체의식이 여전히 잔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족생활 역시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과 동떨어진 것일 수는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생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대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창출이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 예측되는 가족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핵가족의 고립화와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교육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가족문제를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해결도 가족 내에서 찾고자 한다면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사회와 국가의 복지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가족들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결혼준비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

야 한다. 현재 종교·민간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문화시켜 보급함으로써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생활 교육을 통하여 각 가족구성원들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속한 가족을 잘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과 가족이 누구나 똑 같이 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영역임을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다. 개인들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된 가족문화를 창출해 내는 사회 전체적인 힘으로 작용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혼이나 재혼가족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가족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이혼이나 재혼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부재 혹은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추가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전문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혼자들은 심리적·정서적 혼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되므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혼수당 혹은 영구임대 주택 우선 배정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과 여성 취업 알선과 보육시설 이용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이혼가족이 정상적인 기

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이혼가족의 적응 프로그램 실시에 수반되어야 과제는 이혼가족들을 문제가족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가족생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태도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혼자에 대한 낙인화는 이혼자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혼에 대한 개념을 재인식하여 다양한 가족생활 유형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족문화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지지 집단을 구성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족 혹은 이혼·재혼 가족들은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혼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의 성역할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족지지 집단을 구성하여 부재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동체 가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뜻이 맞는 몇 가족이 함께 생활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나치게 가족주의 즉, "우리가족 우리 식구"라는 개인적·이기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려는 노력들로 평가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본다면,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사회 전체적인 변화와 노력으로 새로운 가족문화를 모색하지 않는 한 가족들은 언제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모나 편부를 위한 모임, 재혼

가족 모임들을 구성하여 그들이 함께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에게 치료적·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가족들로 모임을 구성한 후 서로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전문가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이 고유의 적응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집단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족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가족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그리고 가족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다양한 모습의 가족생활을 인정하는 가치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건전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종합토론 :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을 위한 제안

안 동 현

한양대학교 정신과

1. 성격 장애의 증가 경향과 아동 양육의 결함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많은 관심을 끌어왔는데, 이들은 대인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갖고며, 또한 정서적 불안정이 매우 심하다. 정신과 영역에서 외래 방문의 전체 상담중 10%, 입원 환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왜 관심을 끌게되었는가? 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지만 영유기 양육에서 모성의 결함이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이혼이 급증하고, 일하는 주부들이 증가하면서 육아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이같은 결함으로 해서, 생애 대해 항상 회의하고, 심한 정서적 불안정과 공허감, 자아정체감의 혼란으로 해서 대인관계는 물론, 결혼 후 가족관계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갖는다. 이런 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같은 성격 유형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앞으로 더더욱 가족 관계,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정신과 영역에서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라고 하는 병명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성격 장애뿐 아니라, 우울증, 심한 가족 불화와 같은 심한 가족 혹은 부모의 병리적 현상에 의한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영유아가 사회성에 결함을 초래하고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교아원이나 시설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으로만 언급되던 것들이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아직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이런 병명이 도입된 배경에는 가족 관계의 문제를 인식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남성 및 여성의 역할

지위의 변화

최근에 재혼율을 보면 여성의 재혼은 15년사이에 약 50%가 증가한 반면, 남성의 재혼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또 과거에 재혼 남자-초혼 여자의 혼인이 아니라, 재혼 여자-초혼 남자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혼인 형태의 변화는 분명히 과거와 다른 여성의 역할, 지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향은 개정가족법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더불어 여성중에서도 전업주부의 역할, 아동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전업주부를 포함하여 전체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지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전업주부들의 역할이나 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발표하셨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의 지위는 전체 사회에서 거의 고려되고 있지 못하

다. 특히 이혼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지만 이혼과 자녀양육 문제가 별도로 취급되다보니 이혼 재판이나 합의시 자녀 양육 문제가 간과되고 있으며, 자녀의 의견표명권을 포함한 자녀들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1989년 UN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도 이에 비준, 동의하였는데, 이 협약에서 강조하는 3가지 원칙 -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 이 있는데, 이중 앞의 두가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별 저항이 없지만, 특히 세 번째 원칙인 참여의 원칙은 앞으로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논란이 일 수 있고, 때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 우리 실정에 알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이상에서 제기한 몇가지 문제로 해서 가족 문화,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혼 가정		총혼인에 대한 재혼비율		재혼(남)- 초혼(여)	재혼(여)- 초혼(남)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80	16,367	25,579	41	64	35	12
1985	21,558	29,025	57	77	37	17
1990	28,175	32,186	70	80	35	25
1995	23,873	24,761	75	88	28	26

1) 가족 관계의 변화를 예견하지만, 우리가 갖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예를 들면,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나 사회가 그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과 같은 정책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많이 해체되었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지만,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공동체안에서의 가족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핵가족화, 이혼의 급증, 독신 가정의 증가 등 전통 가족의 해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노인이나 장애인을 버리고 행방을 감추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가족 및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지나치게 폐쇄적인 가족 문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동네로 한정하여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내 자식 사랑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아이가 편하기 위해서 새치기를 하는 부모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끌어내리는 일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남의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위할 수 있고, 다른 부모가 나의 아이를 나무라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3) 절음마기에 가장 중요한 자율성의

획득과 효과적인 한계 설정에 의한 분리-개별화 과정의 성취(즉, 자율성, 자제심과 한계 설정의 내면화)를 위해 부모들이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해야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리 찾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체념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신화속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속에서 올바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족 문화에서도 부모는 부모대로 제자리를 찾아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부모의 권위에 승복하고 감동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요사이 유행하는 <흔들리는 40대>, <방황하는 부모들>, <어깨처진 아버지들> --- 등등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4) 전업 주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전업 주부가 "솔뚜껑 운전수" 라는 비아냥과 함께 하대를 받는 사회에서 정당한 가정이 지켜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자기 실현과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가정 주부로 현모양처로 가정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특히, 대학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있어서 전업 주부는 차선택 혹은 어쩔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을 강요당한 다면 가족 문화는 역기능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육아 및 탁아, 교육 환경의 개선등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5) 마지막으로 <콩쥐팥쥐> 신화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재혼후 계부모-자녀와의 관계 재정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혼후 자녀들은 상실과 거절(loss and rejection)의 경험으로 애도 반응과 분노, 불신의 심리 상태를 겪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수립과 신뢰를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년상을 치루듯이 이혼에 대한 심리 적응을 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전통적

가족 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 가족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바를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불어사는 사회, 전업 주부의 권리를 찾는 당당함, 자녀에게 올바른 일을 가르치는 현명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6 여성 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